



# 미 농무성, 타이슨社は '무항생제 사육'이란 표시를 빼라!



장 권 순 전무  
바이엘코리아(주)

미 농무성은 미국 내 최대 닭고기 회사인 타이슨社에게 닭고기 제품 포장에 '무항생제 사육'이란 표시를 더 이상 쓰지 말라는 충격적인 명령을 내렸다.

2007년 6월부터 수 백억 원의 돈을 써가며 경쟁사와

차별화 하기 위해 대대적인 광고 및 판촉 활동을 펼쳐온 타이슨社は 이 상표 표시권을 지키기 위해 긴급히 움직이고 있다.

이 결정은 아칸소 주 스프링데일의 타이슨社가 미 농무성으로부터 2007년 5월에 상표에 '무항생제 사육'이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후인 2007년 11월 6일자 비공개 문서를 통해 전달되었다.

이 표시는 동물사육에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 이 산업계의 회사들이 모두 탐내는 것이었고, 타이슨社에게는 대단한 히트작이었다.

승인을 받자 곧 타이슨社は 팡파레를 울리며 자기네가 무항생제 사육 닭고기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첫 회사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. 그 표시가 승인되었을 때 소비자보호단체들은 타이슨社の 결정을 칭찬하며 다른 회사들도 그렇게 하라고 압력을 가했다.

그러나 미 농무성은 그 상표의 승인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한다. 미 농무성 상표표기 감독관인 다니엘 앵겔존은 "상표 표기가 완벽히 진실되고 자칫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것"이라고 말했다. 이어서 "우리의 변함없는 입장은 무항생제 사육을 주장하려 한다면 닭을 사육하는 전 기간에 사용된 모든 사료에 항생제가 전혀 들어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"고 말했다.

한·미 농무성 대변인은 타이슨社の 상표에 '무항생제 사육'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실수로 반대되는 내용('항생제가 들어가지 않은'으로)을 승인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.

타이슨社 대변인인 캐리 미켈슨에 의하면 타이슨社は 이 결정에 불복하고 지난 수주동안 농무성 관리들과 만나서 '우리(타이슨社)가 옳았고 그들(농무성)이 잘못된 것'이라고 인정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.

미 농무성 결정의 핵심사안은 아이오너포어계 항콕시둡제 사용에 대한 해석과 관련이 있다. 이 제제는 닭을 사육하는 데 콕시둡증을 예방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사료에 첨가해 사용된다. 콕시둡은 단세포 생물의 일종으로 닭의 체중 감소나 폐사를 일으켜서 생산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주는 질병이다. <img alt="Microscopic view of a bacterium." data-bbox="700 855 735 875"/>

- 자료출처 : CattleNetwork.com report, 2007. 11. 20